

리서치 가이드

임다울 디지털 컬렉션

2026.03.07.

작성자 | 오어진

개요

EJ아카이브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임다울 디지털 컬렉션**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약 10년 동안 시각예술가 **임다울***과 주변 창작자들이 생산한 170여 점의 디지털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오브제(object)의 배열과 물리적 이동 및 변형을 통해 환영과 물질의 경계를 오가는 작가의 여정을 드러낸다.

본 컬렉션은 작품과 작가의 활동에 대한 기록물 외에도 그의 작품 목록인 **‘작품’** 시리즈를 별도로 생성하여 다변하는 신진 작가의 작업 세계를 기록물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¹ **‘참여 전시 관련 자료’**와 **‘참여 전시 외 활동 관련 자료’** 시리즈를 통해 각 작품이 실제 전시 현장에서 지니는 다양한 외형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물을 함께 제시한다. **‘개인자료’** 시리즈는 작가 개인의 기록물을 작품 및 관련 기록물과 함께 배열하여, 작가의 실제 활동 및 연구 과정이 작가의 삶과 연동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컬렉션 구성은 작품을 특정한 의미로 해석 및 **‘치환’**하기보다, 물리적 몸체를 지닌 채 현전하는 대상으로 마주하려는 작가의 창작 태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¹ 미술 작품을 아트 아카이브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정혜린(2008)은 미술 작품의 가치를 1차적 가치인 미적 가치와 더불어 2차적 가치인 기록적·조합적·기능적 가치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스콧(Scott, David W.)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품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미술 아카이브의 범주에 작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명주(2006)는 기록물 자체가 미적 가치를 지닌다 해도 기록의 고유한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트 아카이브의 대상에서 작품을 제외하였고 박상애(2014) 또한 아트 아카이브의 수집은 스케치나 에스키스와 같이 작품의 성격을 띤 개체들을 포함하기도 하나 작품과 아트 아카이브를 다른 기록 개체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다울 디지털 컬렉션의 경우, 작가의 작품이 전시 환경마다 그 형상을 달리하는 특성을 살펴, 작품 및 기록물의 연구 과정에서 각 활동별 작품 사진 및 기록물을 비교·연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컬렉션 내에 개념적 단위로 **‘작품’** 시리즈(Series)를 별도로 생성하고, 작품 및 작품과 연관된 기록물을 연동하여 살펴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매 전시마다 가변하는 작품의 양태를 살피는 동시에, 대상에 부여되는 다중적인 환영—즉 작품이 지닌 형상에서 관객이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의미와 상상—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록물의 전경을 존재가 지닌 다양한 양태를 엿볼 수 있는 풍경으로 제안한다.

세부 구성

‘작품’ 시리즈는 미술작품의 매체별로 구분하여 ‘글’, ‘뉴미디어’, ‘설치’, ‘영상’, ‘출판물’, ‘퍼포먼스’, ‘회화’ 서브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설치’ 서브시리즈에는 2023년부터 제작해 온 작품들로 이루어진 ‘금속 지지체 연작’ 파일을 포함한다. 본 파일의 대표작으로는 《좋은 이웃》(2023)에서 최초로 선보인 〈알렉사 오쿠웬〉(2023)을 살펴볼 수 있다. 금속 지지체 연작 외에도 《평행》(2019)에서 처음 선보인 〈멜론〉(2019), 《HOW TO BETTER YOURSELVES》(2020)에서의 〈접힌 일렁〉(2020), 《밤나무-도깨비-분재》(2021)에서의 〈뒷오른팔〉(2021)은 작가가 가공한 오브제를 서로 ‘기대어 두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병렬 구성 방식은 오브제의 물리적인 배열뿐만 아니라 협업자와의 관계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머나먼 일렁〉(2020)에서 cknow 작가와 서로의 작품을 겹쳐 놓는 모습, 퍼포먼스 작품 〈소포〉(2024) 당시 사랑해 작가와 대화를 나누며 옷을 갈아입은 후, 동일하게 작품의 천을 갈아입히는 모습, 그리고 김창재, 안민혜, 정세영과 함께 각자의 오브제를 모빌에 걸어 완성한 《최후의 전시》(2024)의 구성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좌)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트스페이스3 《좋은 이웃》에 전시된 〈알렉사 오쿠웬〉 사진 파일, 2023. 촬영: 이의록.

(우) 2019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복도갤러리 《평행》 전경 기록 영상과 사진 파일, 2019. 촬영: 민.



(좌) 2020년 1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61 402호 《HOW TO BETTER YOURSELVES》에 전시된 〈접힌 일렁〉 사진 파일, 2020. 촬영: 오세아.

(우)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갤러리 175 《밤나무-도깨비-분재》에 전시된 〈뒷으른팔〉 사진 파일, 2021. 촬영: 민.

‘참여 전시 관련 자료’ 시리즈는 ‘개인전’, ‘단체전’, ‘학교 과제전’ 서브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전’과 ‘단체전’ 서브시리즈에서는 동일한 작품이 전시마다 외형을 달리하는 그의 창작 세계를 비교·연구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좋은 이웃》(2023)과 《마음속》(2023)에서의 〈알렉사 오쿠웬〉(2023) 작품 사진 파일, 《좋은 이웃》(2023)과 《접촉환원》(2023)에서의 〈최재연〉(2023) 작품 사진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각 작품은 매 전시마다 작품 내부에 설치하는 종이, 액세서리 등의 사물을 교체한다. 아울러 작가는 동일한 전시 안에서도 전시

중반부에 개입하여 금속 지지체에 씌운 캔버스 천을 교체하며, 작가는 이를 작품에 씌워진 천을 ‘갈아 입힌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때 작품은 동일한 금속 지지체를 유지하나, 작품에 덧씌워지는 이미지로 인해 그 외관을 달리하며, 자신이 부여 받은 의미 또한 바꾸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좌)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트스페이스3 《좋은 이웃》에 전시된 〈최재연〉 사진 파일, 2020.
촬영: 이의록.

(우)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트스페이스3 《좋은 이웃》에 전시된 〈최재연〉 사진 파일, 2020.
촬영: 이의록.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스페이스 카다로그 〈최재연〉 사진 파일, 2023. 촬영: 박민영.

‘학교 과제전’ 서브시리즈는 작가가 대학교 학부생일 당시 학교 과제의 일환으로 실험한 작품의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미상(2017)’의 재료인 삼베천, 옷 거치대, 정장 상의, 인조 꽃 등은 현대사회에서 죽음을 은유하는 심상을 떠올리게 하나, 의미론적 환원 없이는 해당 의미를 구현하지 못하는 사물들이다. 이는 물질을 둘러싼 언어와, 이를 경유하되 특정한 의미로 환원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태도로도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학내 청소 노동자의 휴게 공간과 갤러리 전시 작품의 상태를 오가는 〈멜론〉 (2019), 집안에서 외부를 비추는 창틀·공간 내부의 작품 및 보관물의 상태를 오가는 〈접힌 일렁〉 (2020), 《크라운 샤이니스》 (2020)에서의 신체 부위 연작, 《밤나무-도깨비-분재》 (2021)의 〈물갈퀴〉 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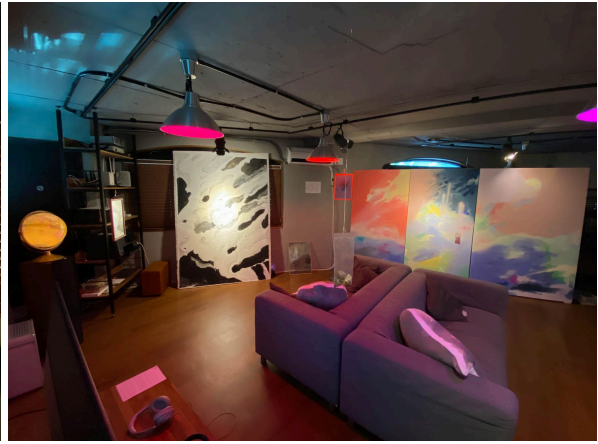


(좌) 2017년 학부 과제전 출품작 사진 파일, 2017. 촬영: 민.

(우)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갤러리 175 《밤나무-도깨비-분재》에 전시된 〈물갈퀴〉 사진 파일, 2021. 촬영: 민.

‘참여 전시 외 활동 관련 자료’ 시리즈는 기획과 평론, 그리고 공식 전시에 출품되지 않은 기타 작품에 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 서브시리즈에서는 임다울이 기획한 《모델하우스》(2020)에 참여한 작가 8인의 전시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릴레이 개인전으로 진행된 전시는 전시명 ‘모델하우스’에서도 드러나듯, 미래를 사유하며 제작한 각 작가의 전시 전경을 현재에 소환한다. 각기 다른 시기에 개최된 전시는 해당 컬렉션 안에서 동시에 펼쳐지며, 현재에서 발생하는 미래적 심상을 감각할 수 있게 한다.



(좌)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라운지32 《모델하우스: HM05.》 전경 사진 파일, 2020. 제공: 임다울.

(우)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라운지32 《모델하우스: 33: 비바리움》 전경 사진 파일, 2020. 제공: 임다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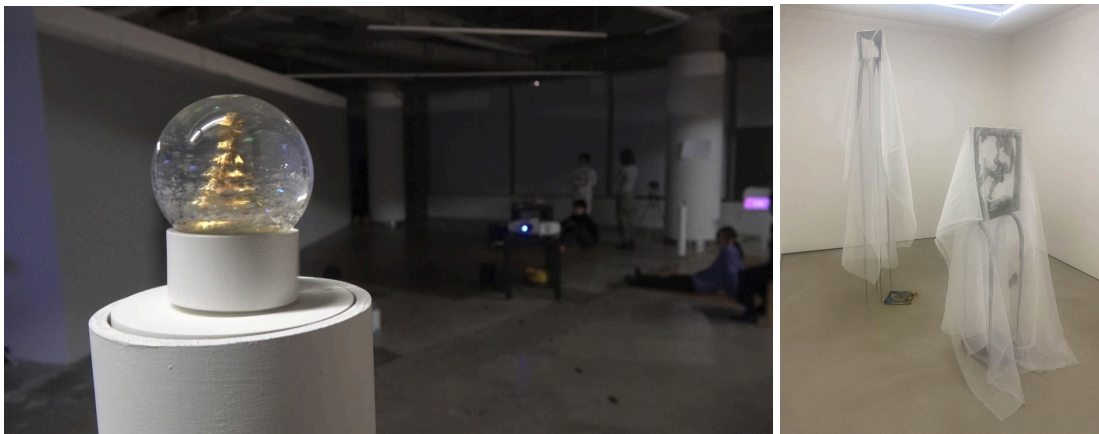
(좌) 2020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라운지32 《모델하우스: 숲에서 생각한 것들.》 전경 사진 파일, 2020. 촬영: 민.

(우)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라운지32 《모델하우스: "펑 - 펑현숙. 권 - 권카."》 전경 사진 파일, 2020. 촬영: 오어진.

‘평론’ 서브시리즈는 작가가 작성한 평론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Damage』 라이너 노트」(2022)와 「『셋 이상이 모여』, 《다른 곳 Elsewhere》, 『큐레이팅의 역사』 재론 -

Curate : Create : Edit」(2021)에서는 그의 협업자이기도 한 음악가 김도언의 『Damage』(2022)와 평론가이자 발행인 이여로의 『셋 이상이 모여』(2021)에 대한 작가의 관점 및 협업자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외 작품 활동’ 서브시리즈는 〈좀 더 일렁〉(2019), 〈더 큰 일렁〉(2019), 〈글로브〉(2018)를 비롯한 미발표 작품 사진을 포함한다. 각 작품은 현재 금속 지지체 연작과도 유사한 오브제의 배열 방식이 두드러진다. 또한 〈글로브〉에서 등장하는 오브제인 스노우볼은 퍼포먼스 작품 〈소포〉(2024) 중 퍼포머가 옷을 갈아입히는 금속 지지체 연작과도 연동되며, 오브제(작품 및 설치물)와 인물(퍼포머)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작가의 관심을 보여준다. 전시 참여 외에도 기획, 글쓰기, 작품 실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해 온 그의 창작적 실천을 엿볼 수 있다.



(좌) 2018년 〈글로브〉 사진 파일, 2018. 촬영: 민.

(우)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상하울 《임다울》에 전시된 〈소포〉 사진 파일, 2024. 제공: 임다울.

‘개인자료’ 시리즈는 2024년 작품 제작 과정 기록 사진을 비롯한 개인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속 지지체 연작’의 프레임을 가공하는 그의 모습과 작품 제작 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작가와의 논의 끝에 공개되지 않는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24년 작품 제작 과정 기록 사진 파일, 2024. 촬영: 임다을.

목적과 의의

본 컬렉션은 신진 작가의 세계를 기록하고 연구하여 작품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작가의 성장과 함께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2026년 현재 작가의 대표작인 ‘금속 지지체 연작’뿐만 아니라 학생작과 미발표 작품,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 및 향후의 활동을 교차하여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록물의 전경을 통해 단일 전시 현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작품과 활동의 흔적을 살핀다.

사물과 오브제의 의미에 위계를 고정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배열을 실천하며 존재가 담고 있는 환영과 물질성을 실험해 온 작가의 창작 및 관련 기록물은, 기록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구축한 ‘계층 분류’ 안에서도 ‘검색어’, ‘생산자’, ‘연관자료’ 등의 링크를 활용하여 부여된 계층 체계를 횡단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컬렉션-시리즈-서브시리즈-파일-아이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컬렉션은 작가의 작품과 활동 전 영역을 완벽히 분류하기보다, 해당 분류 역시 작가의 세계를 조우할 수 있는 많은 관점 중 하나임을 드러낸다.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생성 중인 기록물의 경로는 모든 기록이 완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구축하기 보다, 창작자의 활동 과정에서

함께 호흡하며 증식하는 기록과 이에 대한 분류 연구를 지속해야 하는 아트 아카이브의 과제이자 의의로 다가오기도 한다.

다만 본 컬렉션 구축 초기 과정에서 시도한 작품 구성물 개별에 관련한 기록은 기록연구자가 작품 제작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병행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일단 중단하였다. 이는 2026년 이후 신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단일 작품 또는 관련 기록물뿐만 아니라, 작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개별 사물의 정체성 또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터와 홍보물을 비롯한 기록물은 소장처가 불분명하거나 디지털 파일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컬렉션의 형식으로 이를 취합 후 정리하였다. 작품과 기록물의 소장처 및 소장 이력은 비공개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컬렉션에 대한 활용은 소장자와 생산자를 비롯한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개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다울**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가. 실재와 인식, 존재의 부정성과 같은 주제를 '환영주의(illusionism)' 라는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렌즈를 통해 탐구한다. 회화, 조각, 영상, 텍스트 기반 작업을 결합하며, 가상성과 진실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태이, 배은아, 안민혜, 알렉스 세이크, 양기찬, 오어진, 이상엽, 이여로, 차연서와 함께 만나 작업했으며, 갤러리175(2021), TINC(2022), 아트스페이스3(2023), 스페이스 카다로그(2024), 상히움(2024), 샤휄(2025) 외 여러 공간에서 전시했다. 웹 로컬 '사슴'을 설립 중이다.